

그들의 눈길을 마주하는...

장승남/성모병원 내과 병동 간호사

그 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죽음의 순간을 경험했고 어린 영혼들을 떠나 보냈다. 처음엔 많이 가슴 아파하고 의기소침해지면서 일할 의욕조차 잃었는데, 호스피스 수녀님의 도움으로 우연한 기회에 호스피스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어둠과 아픔을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조금씩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올해 부터는 1년간의 호스피스 전문 교육 과정에 입문하게 되었으며 기대 이상의 좋은 교육 프로그램과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다.

승범이, 용균이, 성우, 은경이, 민정이...

우리 곁에서 멀어져 간 작은 영혼들에게 떠나가는 순간까지 해줄 수 있는 일들이 많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저 가슴 아파하기만 했던 그 시간들이 아쉽기도 하다. 하지만 노트에 적힌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해 보며 지금은 더 좋은 세상에서 아픔 없이 환하게 웃고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해 본다. 그리고 남아 있는 어린 친구들에게 힘과 사랑을 줄 수 있으리라 믿으며 이번에도 내 곁에 호스피스란 이름으로 다가온 소년을 마주하게 되었다.

민우란 이름을 지닌 소년은 열여섯의 사춘기를 맞고 있었으며 지난 '96년에 AML(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CR(완전 관해 상태)을 유지해 오다 두 차례나 재발의 위험을 맞기도 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순간에도 생각보다 제법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고비를 극복하려 애쓰고 있었다. 민우는 또한 장난끼 있고 리더쉽도 있어 환아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으며 공부도 늘 1, 2등을 놓치지 않는 우등생이었다. 나와는 첫 치료 때부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민우도 친누나처럼 따랐기에 무리없이 다가설 수 있었다. 많은 만남과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중에서도 민우와의 세 번의 만남이 기억에 나고 그 순간에 난 민우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와 내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을 찾으려 노력했다.

작년 가을이었던가, 1년 만에 재발이 되어 장난끼 어린 민우의 얼굴에 상심이 가득했던 그때, 난 처음으로 민우도 호스피스 대상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마음을 지닌 채 민우에게 접근했었다. 하지만 늘 밝고 맑은 모습만 보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다. 민우의 어두운 모습을 보며 아픔을 이해하고 들어준다는 것이 날 무겁고 힘들게 했다. CR(완전 관해 상태)이 되었을 때도 그 기쁜 소식을 내가 알려 주었었는데 재발이 되었다는 사실도 내가 전해주어야 하는 건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자꾸 멈췄하는 나를 발견했다. 그런 부담감을 안고 병실에 들어섰을 때 민우와 나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는 매개체 역할을 ‘성서’가 해주었다. 의외였다. 종교가 없는 민우가 성서책을 뒤적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난 불안해 하고 있는 민우에게 말을 건넸고 민우는 자원 봉사자님이 힘들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서를 펴면 자신에게 하느님의 메시지가 온다고 했으며 믿지 않지만 해 보고 있는 중이라 했다. 난 자연스럽게 민우 곁으로 가서 그 구절을 함께 읽으며 소년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경험했고 생각보다 재발의 상황을 덤덤히 받아들이는 그를 보며 안심했었다. 하지만 축 처진 민우의 어깨와 함께 눈 마주치기를 꺼려했던 내 모습에 회의를 느껴지기도 했었다.

그리고 올해 초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고 회복기에 기쁨과 아픔을 동시에 경험했던 짧은 시간 속에서의 민우의 모습이 역시 기억에 남는다. 민우를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시며 구슬땀을 닦아내던 민우의 부모님과 여러번 대화를 나누며 도와 주고 싶단 생각에 같이 분주했던 시간들을 경험했었다. 민우의 아버님은 침착하시고 힘들단 표현을 안하시는 편이셨는데 회복기가 길어지자 불안해 하며 민우를 살려 달란 말을 하시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다. 그때 난 “잘 되리라 믿어요”란 대답을 했지만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한 분이시며 어려운 순간에 나도 늘 그분의 어깨에 기대 왔기 때문에 확신없이 그저 용기만 줄 뿐이었다. 하지만 그순간 난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며 간호사로서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을 찾았다. 그래서 민우가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함께 몇 구절씩 읽고 느낌을 이야기하기도 했고 늘 CBC(혈액학 검사) 결과가 나올 시간이 되면 미리부터 초조해 하는 민우에게 수치를 알려주며 궁금해 하면 설명해 주기도 했다. 또 통증이 있으면 즉시 조치해 주어 신체적으로 편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했다. 우선 신체가 편해야 다른 것을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그때 Palliative care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hospice care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민우는 안정을 찾았다. 하지만 두 번째 재발이 되어 치료를 포기한 채 퇴원했다. 같은 병실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다 죽어간 어린 친구들을 보며 다른 어린 환아들은 “그 형 어디 갔어?”라고 묻는 반면 그저 말없이 고개만 숙이던 민우.

난 죽음에 대한 민우의 생각이 궁금했었다. 그래서 우선 내가 죽음은 시작이란 말에 확신을 갖게 되었던 말을 하며 그의 죽음에 대한 견해를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의아한 눈빛을 비추면서도 편안한 미소를 지었던 민우의 표정에서 확실한 대답은 얻지 못했지만 희망을 보았다. 민우가 죽음을 그저 무서워하고만 있진 않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

이다.

호스피스, 참 어렵고 ideal 한 것이란 생각이 들다가도 그들에게 접근하는 길이 열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해 주어 편안함을 느끼게 해 주었을 때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마음의 문을 열면...

호스피스, 그것은 참으로 필요하며 가능한 일이고 정말 우리가 해야 할 몫이란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에게 다가가는 과정도 나의 힘이 아니란 생각이 든다. 사실 호스피스를 접하며 내가 주는 것보다 그들에게 받는 것이 더욱 많다.

그중에서도 '죽음'이 '삶'이며 아름다울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경험하게 해준 소중한 경험들은 더욱 값진 것이다. 정말 죽음의 순간은 아름답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용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아무리 닫혔던 마음도 마지막 순간에 열리게 되는 아름다운 감동의 그림이 그려진다. 호스피스 안에 내가 공유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에 또한 감사를 느낀다. 호스피스 환자들은 목욕하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고 한다. 아마 마지막까지 자신이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고귀한 느낌 때문일 것이다.

나도 많이 바쁘고 지쳐 때론 짜증도 내지만 호스피스에 있어서의 우리의 역할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들의 눈길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받은 얻었다는 생각을 해 본다.

얼마전 민우가 마지막 치료를 받기 위해 다시 입원했다. 지금 가진 맑은 마음을 지닌 채 오늘은 민우에게, 그리고 환자들에게 다가서야겠다. 아마 나의 발걸음은 가벼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도 나를 필요로 할 것이란 확신이 들기 때문이다.

